



2012 여수세계박람회 개막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박람회장과 인프라 확충 공사가 한창인 여수시내에 외지 건설노동자들이 몰려오고 집값과 땅값이 오르는 등 지역경제가 아연 활기를 띠고 있다. 박람회장 건너편에 조성된 세계박람회 종사자 숙소인 엑스포타운 전경. /내영주기자 mjna@kwangju.co.kr

## 한전 배구단 '캡코45' 연고지 광주로 옮긴다

겨울스포츠 불모지 광주에 남자프로배구팀이 유치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15면>  
9일 한국배구연맹(KOVO)과 광주시, 광주시체육회에 따르면 프로배구 남자부 7개구단 중 수원을 연고로 하고있는 한전 배구단 '캡코45'팀 연고지를 광주광역시로 바꾸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배구연맹에 따르면 "겨울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배구 구단 유치를 강력하게 희망해온 광주시의 의견을 받아들여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로의 이전을 앞두고 있는 한전측에 연고지를 광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해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며 "이는 수도권 도시들에 집중된 프로배구를 전국화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대표 공기업인 한전측은 그동안 입주가 지연되면서 지역민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받아온 만큼 프로배구단을 광주 연고로 바꿀 경우 지역친화력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를 연고로 한 야구(KIA 타이거즈)와 축구(광주 FC) 등 하계스포츠 팀은 있지만 대도시 중 광주만 동계스포츠 프로팀이 없다"며 "배구팀을 유치하면 도시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전국 팬들이 광주를 방문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이라며 말했다.  
광주시와 시체육회에서는 프로배구단 유치를 위해 송정역 복합환승센터에 프로배구팀 전용경기장을 짓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배구 전용 경기장은 종합체육관에 비해 공사비가 적게 드는데다 현대식 역사에 경기장이 들어서실 경우 서울과 수도권 팬들이 KTX를 이용해 경기를 관람하게 돼 송정역 도심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는 분석이다. <체육부>

## 박람회 4개월 앞 여수가 들썩

집·땅값 천정부지 '집·방 구하기' 전쟁  
박람회장·도로공사 철야작업 불안성  
외지 노동자 넘쳐 숙박업소 연일만원

2012 여수세계박람회(5월 12일~8월 12일) 개막이 4개월 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수가 들썩이고 있다. 박람회장 조성 현장에서 만난 건설인 부들은 공기를 맞추기 위해 실새없이 움직였다. 여수~순천 자동차 전용도로 등 도로망 확충 사업이 곳곳에서 진행되면서 외지에서 일자리를 찾아 여수가 들어오는 건설노동자들이 늘고 '방 구하기' 전쟁이 벌어지는가 하면, 땅값도 치솟고 있다.

9일 여수시에 따르면 엑스포 기반 시설과 엑스포타운 조성·운영 및 관광호텔 건립 등이 잇따르면서 지난해만 1만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엑스포타운 대행사인 (주)에이치.티.씨는 여수현영대학의 관광호텔전공 40여명의 학생들을 6개월간 엑스포타운 운영 요원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엑스포타운의 청소, 경비, 시설관리 등을 위해 270여명의 인력 채용

계획도 세워놓았고 엑스포 지원시설로 지정돼 신축 중인 호텔과 골프장에도 지역 인력이 투입됐다.  
여기에 박람회장 도로확장, 석재교차로 개선사업, 오동도~종화동간 신·구항 연결도로공사 등이 내년 3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면서 여수시 곳곳은 활기가 넘쳐났다.  
특히 박람회장 조성 현장은 성공개회를 위해 공사 기간을 조금이라도 앞당기기 위한 겨울철 야간 작업이 이뤄지면서 불안성을 이루고 있다.  
노동력 구하기도 하늘의 별따기다. 한 건설업자는 "일감은 밀려드는데 일손이 모자라 다 놓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일 자리를 찾아 타 지역에서 여수로 넘어오는 건설 인력들도 넘쳐나면서 숙박업소는 연일 빈방이 없을 정도

다. 여수시 소호동 선소 일대 숙박업소는 이달 예약이 수개월 전 마감됐고 박람회장 조성 현장 노동자 사이에서는 이른바 '달방' 구하기 전쟁도 벌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노동자 사이에서는 "몇 개월 전부터 예약을 해도 달방이 나오질 않을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이렇다보니 원룸과 펜션 신축 현장도 부족 늘어나는 등 부동산 경기도 살아나고 있다.  
건설 경기 침체로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전국 상황과 정반대다. 박람회 관련 대대 실리로 유례없는 프리미엄까지 형성되고 있다.  
여수지역 아파트는 지난해보다 3.3㎡당 평균 100만원 이상이 올랐다. 예컨대 지난 2008년 분양된 웅천 3단지 1차(1084가구)의 경우 바다 조망권에 힘입어 지방 중소도시에서 드물게 최고 4000만원의 프리미엄을 형성하고 있을 정도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2억원대(26평,85㎡)에 분양된 아파트가 2억4000만원을 호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내년 초 600가구 분양을 앞둔 아파트 분양가는 박람회 유치 당시 3000만 원(3.3㎡당)의 두배가 넘는 평당(3.3㎡) 600만원대 중반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류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는 중국과 일본,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에서 여수엑스포 관람 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방문도 잇따르고 있다.  
한편, 박람회장 현재 공정률은 89%로, 전시장 대부분이 제 모습을 갖추고 있으며 랜드마크 역할을 할 '빅-O'(Big-O)는 대형 워터스크린을 만드는 데 쓰일 'O(오)'형 구조물을 얹는 작업을 앞두고 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성하고 있을 정도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2억원대(26평,85㎡)에 분양된 아파트가 2억4000만원을 호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내년 초 600가구 분양을 앞둔 아파트 분양가는 박람회 유치 당시 3000만 원(3.3㎡당)의 두배가 넘는 평당(3.3㎡) 600만원대 중반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류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는 중국과 일본,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에서 여수엑스포 관람 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방문도 잇따르고 있다.  
한편, 박람회장 현재 공정률은 89%로, 전시장 대부분이 제 모습을 갖추고 있으며 랜드마크 역할을 할 '빅-O'(Big-O)는 대형 워터스크린을 만드는 데 쓰일 'O(오)'형 구조물을 얹는 작업을 앞두고 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 "쇼핑백 안에 봉투 잔뜩 있었다"

돈봉투 폭로 고승덕의원 무더기 살포 의혹 제기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9일 '전대 돈봉투' 사건과 관련 "내가 보고받은 바로는 (한 남성이 쇼핑백에 넣어) 노란색 봉투 하나만 들고온 것이 아니라 쇼핑백 속에서는 같은 노란색 봉투가 잔뜩 들어 있었다"며 박희태 국회의장의 측의 무더기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추가로 제기,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관련기사 4면>  
고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원실 여직원에게 노란색 봉투가 전담대회 하루 이틀 전에 배달됐고 그 봉투 속에는 현금 300만원과 특정인의 이름이 적힌 작은 명함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의원은 이어 "여러 의원실을 돌아다니면서 돈 배달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부 언론에서 돈봉투를 들고 온 사람이 (청와대) K모 수석인 것으로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돈봉투를 돌려준 당일 오후 박 대표 측 인사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전화받은 것은 사실이지

만 (전화를 한) 박 대표 측 관계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오늘 이 시점에서 말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한나라당 전담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공안부와 특수부, 금융조세조사부의 정에 수사인력을 차출해 수사를 구성했다고 이날 밝혔다.  
수사팀은 이날 2008년 7월3일 전담대회를 전후해 박희태 의원의 명함이 들어 있는 돈봉투를 받았다가 돌려준 고승덕 의원실 전 보좌관과 여비서를 소환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 가동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광주·전남 나눔캠페인 '사랑의 행복온도' 후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금액  
작년보다 각각 28·18% 상승

광주·전남 지역의 희망 2012 나눔캠페인 '사랑의 행복온도'의 수은주가 치솟고 있다. 9일 광주·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캠페인 40일째인 이날 현재 모금액은 광주 19억8800만 원, 전남 46억4586만 원으로 각각 목표액(광주 22억 원, 전남 58억 원) 대비 86.8%, 85% 수준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광주는 28.5%, 전남은 17.6% 상승한 수치로 이상 상황이라 목표액의 10~15% 추가 달성도 예상된다.  
공동모금회는 이번 캠페인 기간 동안 물품

기탁과 그동안 주춤했던 소액기부가 크게 늘어난 것이 모금액 증가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전남의 경우 그동안 한 명도 없었던 1억 원 이상 기부자들의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Honor Society) 회원이 이번 캠페인 기간 동안 3명이나 탄생하면서 기부문화 확산에 큰 도움이 됐다.  
광주도 지난 2009년 1호 회원이 탄생한 이후 지난해 2호 회원이 가입하고 캠페인 기간 내에 3호 회원이 가입을 하기로 했다.

또, 공동모금회가 지난 2010년 비리 사태 이후 내·외부적인 자정노력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한 것도 한몫했다.  
특히, 전남이 올 모금 목표액을 지난해 대비 6억 원 가량 높이는 등 해마다 목표를 꾸준히 달성했지만 광주 '사랑의 행복온도'는 최근 3년 동안 목표액을 100% 달성하지 못했다. 지난해의 경우 목표액이 22억 원이었으나 최종 모금액은 20억4500만 원에 그쳐 93%를 달성했고, 희망 2010 캠페인은 98% 달성에 그쳤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 광신대학교

2012년 보육교사교육원 학생모집  
[원서접수] ~2012.01.13(금)까지  
www.kwangshin.co.kr  
입학문의 (062) 605-1112 (062) 605-1023

금강 인터넷 쇼핑몰  
www.kumkangmall.com

• MM0001FC32 • MM0001FC33

선택의 즐거움, 가득한 기쁨 -  
**금강상품권**  
어려울 때 일수록 가치를 더하는 선물 -  
금강상품권이 올 설날에도 함께합니다

전국 400여 매장에서 만나보세요!  
전국 어디서나 1588-8877  
상품권은 현금과 교환되지 않습니다. 단, 잔액 금액의 60% 이상 사용시 잔액 환원 가능 수 있습니다.

금강상품권

HANDBAG · H98B092FE3 · H98B092FE4 / WALLET · EP5C11FE4 · EP5C10FE8